https://doi.org/10.18856/jpn.2025.31.2.005

1950년대 ‘『야담과 실화』 필화 사건’과 두 하위 장르의 선정성 논란*

공임순**

1. 에로 전체주의 VS 윤리적 쇄국주의-들어가며
2. 실화, ‘트루 스토리’와 ‘허실 조작’의 성적 경제
3. 야담, 최종선과 에로의 가미된 기교들
4. 『야담과 실화』 폐간 조치를 둘러싼 당대적 힘의 역학-나오며

국문초록

군정법령 제88호를 가동한 『야담과 실화』 폐간 조치는 1950년대 후반 대중지 검열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돌발적이거나 예외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미 그 이전에도 『실화』, 『흥미』와 같은 잡지가 판금과 정간 조치를 받았으며, 『청춘』, 『부부』, 『야화』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수의 대중지들이 풍기문란죄를 근거로 검열과 통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대중지의 확산과 국가 검열은 1950년대 내내 병존하는 현실이었음을 환기하면서, 이 글은 필화 사건의 명명이 주류 언론매체뿐 아니라 대중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되짚고자 했다.

『야담과 실화』 필화 사건을 틀 짓는 실화와 야담, 이 두 하위 장르의 선정성 논란은 2장과 3장의 주요 논점이었다. 두 장르명을 함께 내건 『야담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1977)

**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www.kci.go.kr

과 실화』에 대한 가혹한 조치는 〈서울 처녀 60%는 이미 상실?〉이라는 발매도 전에 몰수를 불러온, 이른바 "한국판 킨제이보고서"를 둘러싼 힘의 충돌과 검열의 역학을 가시화했다. 잡지사도 예상치 못했던 파국적 전개는 남녀 성생활에 대한 과학적 통계라는 '트루 스토리'의 주장을 '허실(虛實) 조작'으로 일축해 버린 국가 검열 권력의 일방적 승리로 귀결되었지만, 이 틈새에서 성적 경제의 가십성 폭로 실화가 번성했음을 2장은 드러내 주었다.

3장에서는 실화 못지않게 야담 또한 에로+(패륜, 범죄, 여체, 기괴…)의 다양한 재조합 기술을 통해 '제2 전성기'를 견인했음을 중고 신인 작가 최종선의 야담을 중심으로 살폈다. 대중지에 특화된 이 야담가들의 약진은 1950년대 시대상을 비추는 또 하나의 단면이자 풍경으로 기억될 가치가 있음을 제언하면서, 이 글은 1960년대에도 외설과 정화의 명목 아래 대중지가 여전히 허용과 금기/검열의 임계선에 놓였음을 부연하는 것으로 4장의 결론을 갈음하였다.

(주제어: 『야담과 실화』, 선정성 논란, 1950년대 한국의 검열, 필화 사건, 실화, 최종선의 에로 가미 야담)

1. 에로 전체주의 VS 윤리적 쇄국주의

1954년 9월 이무영은 대중잡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조짐을 기민하게 읽어내는 한 편의 글을 발표한다. 1951년 7월 피난지 부산에서 일찍이 창간호를 낸 월간 『희망』에 권두언으로 실린 〈소금 장사의 군상(群像)〉이었다. 여기서 그는 너도나도 인기가 있다 싶으면 뭐든 가리지 않고 모방하는 세태가 잡지출판계에서도 재연되고 있음을 꼬집으며, 대중잡지의 전성기

www.kci.go.kr

와 함께 초래될 파국을 앞질러 내다본다.

그가 "『희망』이 잘 되어 나간다고 하니까 이를 송두리째 모방하려는 몇몇 잡지가 나왔고 또 대중지가 1, 2종 나온다고 한다"[1]라고 일갈했던 잡지 중에는 1951년 9월 창간 후 3호 만에 발행정지를 당하고 1954년 1월 재창간하여 『신태양』과 『희망』의 아성에 도전했던 『청춘』이 있었다.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태양』과 『희망』의 5만 부 판매 부수에 육박하는 3만 부의 발행 부수로 3대지 천하를 이룬 『청춘』에 이어 잡지계 판도를 뒤흔드는 대중지 1~2종이 곧 모습을 드러내게 될 터였다.[2] 바로 『희망』을 주력 잡지로 하여 1955년 7월 자매지로 탄생한 『야담』과 후발주자로 늦게 뛰어든 삼중당의 회심의 시도인 『아리랑』이 1955년 3월 고고성을 울리기 때문이다.[3]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전후 미 원조에 힘입어 진행된 일상의 재건과 회복은 과잉 도시화의 산물로 대중매체의 약진을 견인했다. 대중잡지는 이 실질적인 상징이자 척도로 적어도 1958년까지 도시 소비문화의 최첨단 상품으로 그 위세를 떨치게 되는 것이다. 출판업계의 점점 짙어지는 불황의 그늘 속에서도 대중잡지의 이러한 이례적인 성장과 선전은 유사 동종잡지의 모방과 경쟁을 피할 수 없게 했는데,[4] 이 얄팍한 상혼의 전형으

1) 이무영, 〈소금 장사 군상(群像)〉, 『희망』, 1954.09, 27쪽.
2) 박성환, 〈건강한 독자 위주하라〉, 『동아일보』, 1954.07.18., 4면.
3) 한국판 노마 세이지로 불렸던 서재수의 삼중당과 3대지의 판도를 바꾼 『아리랑』의 출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공임순, 「삼중당의 '대중문고', 『아리랑』, 역사물의 연쇄와 순환」, 『춘원연구학보』 제26호, 춘원연구학회, 2023에서 지적했다. 참고로 이 논문에서도 썼듯 『아리랑』은 1955.3월 창간되어 서재수가 사위 이월준에게 판권을 넘기는 백호의 전호인 1963.2월까지로 한정된다. 창간 3만 부 완판에 이어 그해 최대 9만 부까지 판매된 『아리랑』의 약진은 서재수의 뛰어난 사업 수완이 작용한 결과이기도 했다.
4) 출판업계의 불황은 1955년에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매출에 비해 과중한 세금은 도매상의 부진과 자진 폐업을 낳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1957년에 가시화되는 미 원조의 감소는 〈정유(丁酉) 문화계 총평〉, 『경향신문』, 1957.12.16.에 따르면, "혹자는 말하기를

www.kci.go.kr

로 이른바 “젖꼭지 문학”이라 불린 ‘에로 붐’이 문제시되었다. “『여자대학생의 정조』가 잘 팔린다니까 좋은 작가들도 통속, 도색에 눈을 판다”[5]고 비아냥댄 이무영조차 『희망』 연재물인 〈사랑의 화첩〉에 농익은 장면들을 삽입할 수밖에 없었던 데서 알 수 있듯,[6] 일면 자성과 일면 동조가 어우러진 내적 분열상은 긴장의 도를 더해가며 아래 사건을 예고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의 무관심을 딛고 되짚어볼 가치가 있다.

> 치안국에서는 일일 대중 오락잡지 「실화」(신태양사 발행)와 「흥미」(흥미사 발행)의 「판권 취소」를 공보실에 건의하였다. 경찰 당국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는 「실화」 1월호 및 「흥미」 1·2월호에 공안 풍속을 해치는 음화와 음탕 저속한 기사가 수록되어 사회 풍기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기 잡지 한 권에 게재된 기사 중에는 외설한 구절이 수십 군데나 있다고 한다. 경찰 당국에서는 또한 전기 문제되고 있는 잡지 「실화」 1월호 「흥미」 1·2월호의 시판 압수에 대하여도 공보실 측과 구두 합의를 보고 있어 금명(今明)간 압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 당국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출판물에 대하여서는 「판권 취소」 및 현물 압수는 물론 형법 제242조

금년(今年) 같은 출판계의 불황이 일찍이 우리가 맛본 바 없다”라고 하는 탄식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이러한 짙은 불황의 그늘에서도 1958년 출판 통계는 주간지는 감소한데 반해 월간지의 신규등록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월간을 위주한 대중지의 과잉 경쟁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던 셈인데, 이와 관련한 논의는 이두영, 『현대한국출판사: 1945~2010』, 문예, 2015, 178쪽을 참조했다.

5) 이무영, 앞의 글, 27쪽.

6) 이무영의 〈사랑의 화첩〉은 『희망』 연재물로 1952.8월을 1회로 1953.10월 15회로 끝을 맺었다. 초창기 『희망』은 유실된 권수가 많아 10월호를 입수하지는 못했지만, 9월과 11월호 및 신문광고와 교차하여 검증한 결과이다. 1958년 민중서관의 ‘한국문학전집’ 이무영 편으로 재출간되었다. 『희망』에 실린 문예물에 대해서는 임은희, 「『희망』 문예란에 나타난 ‘희망’의 표상 구축 방식과 문화정치」, 『대중서사연구』 제23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7에서 상세히 짚었는데, 이무영의 〈사랑의 화첩〉 연재 기간은 필자의 조사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www.kci.go.kr

(필자 보정-제243조)를 적용하여 입건할 방침이라고 한다.[7]

1958년 1월 12일 『동아일보』는 〈흥미·실화 판권 취소 건의〉의 제하로 관련 기사를 건조하게 전한다. 이 기사에 의하면, 치안국은 대중 오락잡지인 『실화』와 『흥미』의 특정 호가 공안 풍속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공보실과 의논하여 현물 압수는 물론 판권 취소와 입건까지 진행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현물 압수는 문제가 된 발행 호수에 대한 사후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가지만 판권 취소와 편집자 입건은 기존에 없던 강경한 대응으로써 『실화』와 『흥미』가 그야말로 된서리를 맞은 격이나 다름없었다.

1957년 초 "공보실은 일부 잡지출판업자를 소환하고 「에로이즘」을 규탄한 바도 있었다."[8]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사실로 미루어보면, 공보실은 계속 대중지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일부 잡지출판업자들을 불러 구두(口頭) 경고했음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치안국과 공보실 합작의 규제와 처벌로 가시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치안국이 건의한 판권 취소는 공보실에서 다소 완화되어 흥미사에 대해 3개월간 정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신태양사에 비해 유독 가혹한 형벌을 받은 흥미사는 동해 6월 속간 후 더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비운을 겪게 된다.[9] "사상 통제 이외에는 비교적 관대한 검열이 이루어"[10]진 풍속 검열의 양태에 비추어 3개월간 정간 조치는 한 잡지

7) 〈흥미·실화 판권 취소 건의〉, 『동아일보』, 1958.1.12., 3면.
8) 〈숨 막히는 「에로」의 공세〉, 『주간 희망』, 1957.3.29., 45쪽.
9) 잡지 『흥미』는 1958.1월에 창간되어 2호가 발간되었다. 하지만 음란과 저속성을 이유로 정간된 후 6월에 다시 속간한다는 보도는 있지만, 이후 발행된 흔적은 찾아지지 않는다. 흥미의 발행인 겸 인쇄인은 김시중, 주간은 김성민이며, 편집장은 전봉건이었다. 시인 전봉건은 생존의 필요 때문인지 잡지에 관여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흥미』 정간 후 『아리랑』의 편집부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다음의 기사도 그러하다. 〈인사〉, 『경향신문』, 1958.7.10., 1면.

www.kci.go.kr

사의 존폐를 가르기에 충분히 무거운 제재였던 셈이다.

이 벽두의 사건이 최종적으로 귀결된 것이 바로 1958년 말에 벌어진 『야담과 실화』 폐간 조치였다. 두 잡지에 대한 치안국의 판권 취소 건의를 공보실이 해당 호의 몰수와 3개월 간의 정간으로 정리했던 1958년 벽두의 사건은, 『야담과 실화』 폐간 조치로 확대되는 법적·행정적 선례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반응은 찬반이 엇갈렸지만, 유력신문을 위시한 언론출판계의 우려는 대단히 큰 것이었다. 무엇보다 『야담과 실화』 폐간 조치를 위해 적용된 군정법령 제88호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기간행물의 허가와 취소에 관한 건인 군정법령 제88호는 광무신문지법을 대신해 미군정이 통치의 효율성 차원에서 만든 한시법이었다. 사문화되어야 마땅한 법률을 부활시켜 『야담과 실화』 폐간 조치의 근거로 삼은 데서 비롯된 이 논란은, 언론출판계의 예상대로 1959년 『경향신문』의 폐간 조치로 이어지며 이승만 정권의 장기 독재를 떠받친 검열의 최정점을 이루게 된다.

"군정법령 제88호(필자 첨가)는 정부 수립 이후 10년 이상 적용되는 사례가 없었으나 1959년 4월 30일 이승만 정부의 공보실에서 『경향신문』을 폐간하는 근거 규정이 됨으로써 당시 수많은 논란의 대상"[11]이 되었다는 선행 평가는 이보다 앞서 정간과 폐간의 대상이 된 대중지를 제외함으

10) 이봉범, 「1950년대 문화 재편과 검열」, 『한국문학연구』 제34호,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8, 38쪽.

11) 군정법령 제88호의 적용을 둘러싼 논란은 『경향신문』 폐간에 집중되어 있다. 이 사건은 야당지로 알려진 주류 언론사를 국가 기관이 나서서 탄압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군정법령 제88호 적용은 이보다 앞서 대중지를 상대로 행해졌다는 점은 간과되고 마는데, 이는 공신력을 지닌 국가 연구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해제: 미국의 남한 점령과 국가 긴급권의 발동」, 국사편찬위원회, https://db.history.go.kr/item/cons/levelOnlyBiblio.do?levelId=cons_001_0050_0030_0010. (검색일: 2025.04.04.)

www.kci.go.kr

로써 가능해지는 발언이다. 기껏해야 대중의 저속한 욕구와 취향에 맞춰 영리 추구에만 급급한 대중지의 행태가 불러온 인과응보라는 식의 해석은, 사정당국이나 소위 정론지의 시각이 다르지 않았다.[12] 그렇지만 이를 빌미로 군정법령 제88호의 출판경찰권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저변의 위기감이 대중지와 정론지의 배타적 위계화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목소리를 내게 했던 것인데, 이 일련의 흐름은 『경향신문』 폐간에만 '필화 사건'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필화란 말 그대로 글이나 표현이 통치 권력에 의해 제지되는 상황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화』, 『흥미』에 이어 『야담과 실화』의 폐간 조치는 『경향신문』과 동시대를 공유하는 대중지의 필화 사건으로 적극적인 의미 부여를 해 봄 직하다. 때로 대중지는 제도 언론보다 더 가혹한 취급을 받곤 했기 때문이다. 부분 삭제, 몰수, 발·판금, 폐간의 대중지 수난사는 반공의 사상 통제에 상대적으로 가려진 풍기문란죄의 필화 사건이 엄존했음을 일깨워준다.

이러한 물질적·사회적 위협과 대중지 간 과도한 경쟁 속에서, "에로이즘은 잠든 한국의 윤리적 쇄국주의에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다"[13]는 허용과 일탈의 임계선이 1950년대 대중지의 존재 조건을 틀 지었다. 이 주요한 축

12) 〈『야담과 실화』지의 폐간〉, 『조선일보』, 1958.12.04., 1면; 〈야담과 실화의 폐간 처분은 과연 타당한 조치일까〉, 『경향신문』, 1958.12.04., 1면; 특히 『경향신문』은 자신의 앞날을 예견이나 한 듯 "형법 제243조 음란한 문서, 도화(圖畫) 기타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상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는 저속·의설한 것"이라는 당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정기간행물의 허가제라는 것은 혼란하였던 군정기에 취했던 것으로서 민주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벌써 이러한 법령이 폐기되어야 할 일인데 구태여 이런 언론 제한의 악법을 아직도 적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우려는 곧 『경향신문』 폐간이라는 현실과 맞닥뜨리게 된다.

13) 〈숨 막히는 「에로」의 공세〉, 『주간 희망』, 1957.3.29., 44쪽.

www.kci.go.kr

선을 보여주는 것이 본 연구의 관심사이기도 한 실화와 야담이었다. 『실화』와 『야담』처럼 하위 장르명을 그대로 전면화한 잡지들이 각축을 벌였던 상황에서 알 수 있듯, 1950년대 대중지는 이 두 하위 장르를 출판 이익과 판매 전략의 출구로 삼았다. 사실과 사실 빙자 및 옛이야기에 스며든 과도한 에로티시즘의 혐의와 비난이 꾸준히 제기되며 에로와 검열의 교착을 이루었던 그 한가운데에 두 장르명의 혼합체인 '『야담과 실화』 필화 사건'이 자리했음을 2장에서는 실화, 3장에서는 야담을 대상으로 살핌으로써 당대 대중지의 특정 지형과 양상을 규명하는 데 본 연구가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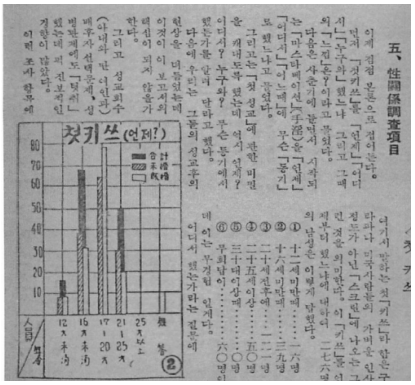
2. 실화, '트루 스토리'와 '허실(虛實) 날조' 사이의 성적 경제

1959년 신년 호를 맞은 『야담과 실화』의 광고란은 신문 아래 사단을 가득 채웠다. 지면으로도 적지 않은 분량의 신년 호 광고란은 독자 대중에 어필하기 위한 잡지사의 노력이 독이 되고 만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발매 전 폐간 조치로 신년 호는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지만, 광고란을 장식한 첫머리의 〈서울 처녀 60%는 이미 상실?〉은 다른 활자보다 크게 사선으로 박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1956년을 전후로 킨제이 박사의 성 과학이 한국 매체에 소개되며 알려지기 시작하던 차에 『야담과 실화』는 어느 잡지보다 발 빠르게 "한국판 킨제이보고서"를 부제로 〈서울 처녀 60%는 이미 상실?〉이라는 도발적인 제목으로 호기심을 자극했고, 이 홍보 전략이 너무 잘 먹혀서 국회 문교위-경찰-공보실이 협력하여 잡지사 발행 허가를 취소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었다.

www.kci.go.kr

이에 대해 해당 잡지사는 "오직 광고에 나타난 제목에서 문제가 된 서울의 처녀는 60% 운운(云云)은 서울의 전후파 처녀의 60% 운운의 편집 자수 관계로 전후파의 3자가 삭제된 데서 오해가 온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사의 본의는 "한국 청소년층의 성생활에서 과학적인 통계의 제시로 해서 성 윤리를 환기"하려는 데 있었을 뿐이라는 항변이었다. 단지 '전후파' 세 글자가 지면 관계상 빠진 데서 빚어진 혼란이었음을 주장하며, 잡지사는 "각계 남성 청년들의 성보고를 카드로 수록하여 게재"한 11월호의 기사를 근거로 든다. 이 연속 기획으로 "여성들의 성보고를 취급"[14]하려 했다는 요지의 발언이었다.

〈그림 1〉 1959.1월 광고



〈그림 2〉 한국판 킨제이 남성 보고

14) 〈처분에 앞서 지도 육성을!〉, 『경향신문』, 1958.12.06., 4면. 여기서 전후파 세자가 빠져 문제가 있었다는 말은 "2개월간 여자대학생, 직장 여성 등 각 방면의 여성들에게 카드 사백여 매를 배포하여 여기서 돌아온 이백여 매의 회답으로 통계를 잡은" 것으로 서울에 사는 일반인 여성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젊은 고학력 여성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뜻이었다. 따라서 이 통계치는 남성 보고서와 다르게 전후파 여성들에 한한 것이며, 60%의 정조 상실이라는 것 또한 이 범주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억울함을 토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www.kci.go.kr

잡지사의 말처럼 1958.11월호 '성 특집'에는 〈한국판 킨제이 남성 보고: 경이! 서울 남성의 성생활은 이렇다〉가 실렸다. 남성과 여성의 성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루려고 했다는 잡지사의 해명을 뒷받침하는 실례이기도 할 터인 11월호 기사는 다음과 같은 편집의 변을 내세웠는데, "성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까지 말하는 사회학자가 출현할 지경"임에도 "아직 성 문제를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단체는커녕 오히려 경멸하기 일쑤다"라는 한국 사회의 척박하고 후진적인 현실이 문제시되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회학자란 당연히 킨제이 박사일 것이며, 그가 시도한 과학적 조사 방법에 입각한 "「서울 남성들의 성생활」"이 한국판 킨제이 보고서의 효시로 제시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일부 대학에서도 동일한 조사가 실시된 바 있지만 채 백여 명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20명의 조사원을 투입해 "3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전례"[15]가 없는 규모로 진행된 명실공히 최초의 한국판 킨제이 보고서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부심 하에서, 〈한국판 킨제이 남성 보고서〉는 첫 키스의 나이와 상대, 이성과의 첫 성교 경험, 아내의 순결과 성병 여부 등을 설문 내용으로 삼아 직접 면접한 조사 결과를 통계학의 필터를 거쳐 지면에 가시화한다. 이를테면 "첫 키스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해 20세 미만에서 30세 이상까지 나이별로 합산한 후 다시 미혼과 기혼으로 나눠 대비하는 식이다. 이렇게 도표로 재구축된 시각적 인덱스(index)는 일반적 통념과 달리 서울 남성의 결혼 전 성교 비율이 65%로 미국의 83%와 일본의 85%보다 훨씬 적다고 하는 고무적인 결론에 도달하기도 한다.

가히 '성의 전회'라고 일컬을 정도로 킨제이보고서는 출간되자마자 미

15) 〈한국판 킨제이 남성 보고: 경이! 서울 남성의 성생활은 이렇다〉, 『야담과 실화』, 1958.11, 53쪽.

www.kci.go.kr

국 내 반향을 넘어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 기저에는 김미영이 적실하게 지적했다시피 "성(욕)의 탈맥락화"[16]가 자리하고 있었다. 어떤 가치 판단이나 이념에 구애됨이 없이 성을 실험실의 대상과 같이 과학적 앎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성 과학 담론의 시대 풍조 속에서, 킨제이보고서는 기존에 행해진 특정인의 경험적 사례 연구에서 벗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과 설문지 체크의 표본 조사 기법을 과감히 도입했다. 남녀 모두 5천여 명을 조사 대상으로 동원한 킨제이보고서의 결과치는 근대 계몽주의의 한 갈래인 계량화의 진리 주장을 말 그대로 구현하게 되는데, 말하자면 조사 대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현실에 가까워진다는 '규모의 성적 경제'가 밑바탕이 된 것이었다. 이 점에서 "한국판 킨제이보고서"에서 선전한 3백여 명의 조사 대상은 비록 킨제이 보고서의 5천여 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해도 "80퍼센트 이상의 신빙성을 가진"[17] 의미 있는 현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셈이다.

1월호는 동궤에서 여성의 성생활에 대한 진실성 있는 통계치를 막 보여줄 참이었다. 이 한 반영이 〈서울 처녀의 60%는 이미 상실?〉이었음은 분명하다. "80퍼센트 이상의 신빙성을 가진" 여성 성생활에 대한 과학적 통

16) 김미영, 「킨제이를 통해 본 자유주의 성 해방론과 그에 대한 비판」, 『사회와 이론』 제7호, 한국 이론사회학회, 2005, 218쪽. 김미영은 킨제이보고서의 성 과학 담론을 칼 폴라니(Karl Polanyi)가 말한 "맥락에서 유리된(disembedded)"을 전유해 "탈맥락화된 섹스"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자유주의 성 해방 담론과 접점을 찾는다. 성을 둘러싼 온갖 제약과 금기에서 풀려나 평균적인 성생활에 대한 킨제이보고서의 통계학적 지식은 근대 개인의 자율성과 주권의 토대인 성 해방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산 표본이라는 것이다. 1948년과 1953년에 발간된 남녀 보고서는 기성의 고루한 윤리 규범과 감각에 맞서 실제 남녀의 성생활 백서로 통용되며, 대중매체 특히 대중지를 통해 자유세계의 선진 지식으로 한국 사회에 순조롭게 연착륙했다. 근대화의 기제인 과학적 실증성이 토대가 된 성 과학 담론의 확산은 성(욕)이 '진실의 쟁점'이 되어갔다고 한 푸코의 견해와도 일맥상통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성의 역사 ①』, 이규현 역, 나남출판, 1997 참조.

17) 앞의 글, 61쪽.

www.kci.go.kr

계의 진실성은 그러나 "그 내용이 종교를 모독하고 또한 여권을 모독"했다는 국회 문교위 및 "국민 도의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음담패설과 허실(虛實) 조작"[18]이라는 공보실의 맹비난에 가로막혔다. 이것이 쏘아 올린 군정법령 제88호의 가동까지 『야담과 실화』 폐간 조치는 한국판 킨제이보고서의 확산에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격이었다.[19] 이 강력한 국가 통제 논리 중 하나가 '허실 조작'이라는 점은 '트루 스토리'를 필두로 당대 잡지계를 풍미한 '실화'를 둘러싼 교차하는 힘의 관계들을 다시금 상기케 되는데, 이 실화의 위험성을 알아차리고 눈치 빠르게 발을 뺀 대중지는 최대 5만여 부수를 자랑하던 월간 『희망』이었다.

월간 『희망』은 1958년 1월 종합지로 변신하면서 1957년 12월 한 면 전체를 빌려 공고했던 실화 현상 모집을 취소한다는 단문 기사를 내보냈다. 〈실화 대현상 모집〉에 비해 〈실화 모집에 대한 취소의 말〉은 『희망』에서 점했던 실화의 축소된 위상을 말해주듯 박스 기사로 가볍게 처리되었다. "종래 오락지의 성격을 띄고 오던 희망지의 성격을 혁신하여 대중 종합잡지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동시에 판형도 국판(菊版)으로 바꾸게 되었으므로 잡지의 성격상 부득이 실화를 게재할 수 없게 되었다"[20]는 취소 공지는, 12월 "본 독자 제현의 희망에 의하여 실화 현상 모집을 결행하게 되었다"는 응모 공지와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준다. 단 한 호 사이에 벌어진 실화 응모와 취소 사이의 내막은 두 공지만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독자 제현이 희망한 실화의 종류들은 실화라는 느슨한 외연 아래 어떠한 이야기

18) 〈『야담과 실화』 폐간〉, 『동아일보』, 1958.12.02., 2면.
19) 이 사건 이후 『야담과 실화』가 시도했던 것과 같은 한국판 킨제이보고서는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다. 물론 의학도가 매춘부를 대상으로 〈한국판 킨제이보고〉, 『조선일보』, 1959.09.13.를 실시했다는 기사가 눈에 띄기도 하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20) 〈실화 응모에 대한 취소의 말〉, 『희망』, 1958.1, 201쪽.

www.kci.go.kr

들이 명멸했는지를 파악하는 실례가 되기에는 충분하다.[21]

> 다음 요령(要領)에 의하여 애독자 여러분께서 많은 집필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응모 작품의 시대 인물 및 장소는 해방 후의 한국으로 할 것.
> ② 창작이나 표절 번안을 엄금함.
> ③ 실화 내용의 시대 인물 및 장소를 명기할 것. 가능하면 사진을 첨부할 것.
> ④ 본 「희망」 지는 물론 타지에 발표된 실화는 불가함.
>
> 응모 작품
> ① 고백 실화 ② 엽기 실화 ③ 범죄 실화 ④ 비련 애화 ⑤ 가정 비극 ⑥ 인정 미담[22]

위 실화 응모 요령에 따르면, 근과거를 배경으로 창작이나 표절은 엄금한다고 밝힌다. 이는 실화가 실제 이야기, 즉 트루 스토리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 "시대 인물 및 장소를 명기"하고 "사진을 첨부"하라는 ③번의 주의 사항은 이 구체적인 절차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응모 요강에 따라 작품 범주는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크게 6가지로 나뉜다. 고백, 엽

21) 희망사의 연쇄 분업에 따라 1958년 2월 『혜성』 창간과 『희망』의 성격 변화가 갖는 연관성에 대해서는 공임순, 「1950년대 전후 레짐(postwar regime)과 잡지 '희망'의 위상」, 『대중서사연구』 제23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8에서 다룬 바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사정당국의 경고가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 1958년 연이은 대중지의 필화 사건에 앞서 공보실이 일부 잡지출판업자들을 따로 불러 경고했을 때, 이들 중에 희망사 사주가 있었으리라는 개연성은 당시 희망사의 위상에 비추어 상당히 높다. 게다가 『희망』의 자매지인 『주간 희망』에 당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기사가 두 차례나 길게 실렸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희망』의 갑작스러운 변신을 외부적 압력으로 전부 돌릴 수는 없다 해도, 잡지사 존폐를 좌우하는 당국의 검열이 부담되었으리라는 정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2) 〈실화 대현상 모집〉, 『희망』, 1957.12, 62쪽.

www.kci.go.kr

기, 범죄 실화에서 비련 애화, 가정 비극과 인정 미담이 그것이다. 좁게는 개인과 가정 면에서 넓게는 사회·정치 면까지 실화가 다루지 못할 영역이란 없다. 무엇이든 실제 이야기이기만 하다면 실화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재조합의 기술이 가능해진다. 이 폭넓은 스펙트럼 속에서 대중지는 어느 잡지를 막론하고 실화 코너를 중점 부각했는데,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종합지로의 변신 이후 『희망』이 휴간과 속간을 거듭하던 끝에 폐간되었던 반면 여전히 "국내 잡지로서는 대중잡지인 『아리랑』, 『명랑』, 『야담과 실화』, 『영화 세계』 등 통속적인 것이 제일 많이"[23] 팔렸다는 사실이다.

〈실화 대현상 모집〉의 야심 찬 기획으로 또 한 번 비상을 꿈꾸던 『희망』에서 '실화'로 망라된 6개 작품군을 염두에 두면서 1958년 2월호 『야담과 실화』에 게재된 몇몇 사례들을 일별해 보면 대중지의 실화 장르가 지닌 대략적인 윤곽이 그려지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의 대중지"가 "엽기, 음담, 패설로 지면을 가득 채우는" "있어도 없어도 좋다기보다 없는 편이 낫"[24]다고 하는 거의 독설에 가까운 유사성과 반복성 때문이다. 아래 도표는 2월호를 대상으로 실화 관련 지면을 제목과 표제 위주로 정리해 본 결과이다.

23) 〈새해의 서적계 일역서(日譯書) 「붐」 한풀 꺾인 후〉, 『조선일보』, 1961.01.13., 4면. 이 기사에서 등장하는 『야담과 실화』는 야담과 실화사를 발행처로 한 『야담과 실화』가 아니라 1960년 전진사가 인수해 10월 창간호를 낸 『야담과 실화』를 가리킨다. 엄밀하게 따지면 발행처를 달리하고 10월 창간호를 낸 만큼 잡지명을 공유한다 해도 별개 잡지로 보는 편이 온당할 것이다. 하지만 신문 기사에서는 『야담과 실화』 재간(再刊)으로 마치 기존 잡지의 연장처럼 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판권 이동 뒤의 창간호 실물은 소장처 불명으로 찾지 못해 신문광고를 통해 확인하건대 전체 포맷은 선행 잡지와 흡사하나 특종 실화 대신 독점 5대 기사로 하여 코너명을 바꾼 것이 눈에 띈다.

24) 〈횡설수설〉, 『동아일보』, 1958.06.19., 2면.

www.kci.go.kr

〈표 1〉 1958.2. 『야담과 실화』 '실화' 지면

제목/필자	표제
삼대 특종 실화: 부역 교수부인 전락 기록/성소민	공방의 외로움을 메꿔준 사나이. 그러나 그는 아내가 있는 남자! 빚과 사랑에 쪼들려 광인이 되어버린 여인 애사!!
폭로 특집: 40대 여중역(女重役)을 품에 넣은 30대 대처(帶妻) 직공/이영	하루하루를 양복 직공으로서 노동해 오던 30대의 얌전한 대처 청년이 모 회사 40대의 여중역을 품 안에 넣고 매일 놀고먹는 횡재!
폭로 특집: 묘령 여인 자살 비화 스토리: 세 모녀를 슬쩍한 호색 명사/방춘호	딸을 욕보인 방에서 그의 어머니까지…… 세 모녀의 정조를 마음껏 농락한 명사!
빠 여급이 된 중학교 교사: 다섯 번째의 첩살이에서 탈출한 비운의 여인 애화/이숙경	그 여자는 중학교 동양사 교사였었다. 지금은 전환하여 서울의 호화가 명동에서 「스탠드·빠-」의 여급으로 오가는 유한 남자들에게 웃음을 판다.
진짜 김일성 장군 신출귀몰 투쟁 비화/신낙현	서울에 출현한 김일성, 유춘우 씨 담(談)

위 제시된 사례 외에도 김용달의 〈실화 스토리: 삼대 보물찾기 소동〉, 김용호의 〈색정의 여 사기행상(詐欺行商): 우락(憂樂) 기자 수첩에서 은수유루기(恩讐流淚記)〉, 이명용의 〈세기의 전락아 이완용의 직손(直孫)들: 일본 밀항 일곱 번째 뉴스 스토리〉, 〈로칼 뉴스 스토리: 살인한 사과 반쪽〉 등도 실화 지면으로 묶을 수 있을 텐데, 크든 작든 뉴스를 매개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사회면 어디엔가 실렸을 법한 이 에피소드들은 실화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실재성'을 지분으로 자투리 지면을 채우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했다. 대중지의 유휴 지면을 한두 컷의 삽화와 함께 탄력

www.kci.go.kr

있게 엮을 수 있다는 이점이 매월 피 말리는 시간 싸움을 벌여야 했던 대중지로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감초 역할을 톡톡히 했기 때문이다. 로컬 소식이나 기자 수첩 등을 적절히 버무리기만 하면 다종다양한 뉴스 스토리를 생산해 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언론 본연의 사명인 사실 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장감 있는 재미와 스릴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실로 가성비 높은 코너였다고 할 수 있다.[25]

뉴스를 결합한 뉴스 스토리 류의 실화와 함께 위 도표에서 제시된 실화 지면은 엽기, 범죄, 가정 비극, 애화(애사) 등에 두루 걸쳐 있다. 인용된 성소민의 〈부역 교수부인 전락 기록〉 또한 "새 세대에 보내는 화제와 특종 실화의 잡지"를 내건 당해 표지와 어울리게 '삼대 특종 실화' 중에서 수위에 실린 글이었다. 이야기는 제목이 가리키는바 그대로 송숙희의 가명으로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성적 일탈과 타락에 방점이 놓인다. 여기서 가명은 거짓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실화 특유의 논리 속에서, 이를 보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장치들이 개입된다. 서두를 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장소 묘사는 현실의 지명을 동반하는 방식으로 당대의 시공간을 매개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삼선교

25) 뉴스를 활용한 실화 코너는 대중지마다 조금씩 형태를 달리하며 배치되었는데, 최대 9만 부의 장기 발간을 이어간 『아리랑』의 경우 로컬 뉴스 스토리 대신 꼬마 실화로 지면의 빈틈을 알뜰하게 채웠다. 한 예로 〈꼬마 실화〉, 『아리랑』, 1955.4, 63쪽에서는 대구시에서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는 부인을 발견한 남편이 의처증이 발동하여 부인을 다섯 군데나 난자해 빈사 상태에 빠지게 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꼬마 실화〉 이후에는 〈해외 범죄 실화〉로 변주되며 로컬과 해외를 흥밋거리로 삼는 이러한 공간적 타자화는 일부 독자에게는 아주 불편하게 다가왔음을 〈독자 편지〉, 『주간 희망』, 1957.2.22., 50쪽은 보여준다. "저는 「로칼 뉴스」를 썩 재미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로칼 뉴스」도 좀 건설적인 것이 있었으면 싶습니다. 흡사 지방 「범죄 판」 같은 기분이 들어서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신 결과겠지만 좀 더 아름다운 얘기 같은 것도 있을 법한데요?" 〈로칼 뉴스〉의 애독자임을 자처한 독자는, 지방을 범죄의 집합소인 양 묘사하는 방식에 불만을 표하고 보다 건설적이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셈이다.

www.kci.go.kr

에서 서북쪽으로 성북동을 향해서 올라가노라면 중간쯤 해서 한국식 주택들이 있으며 여기를 지나서 좀 더 옛날 백인기 별장 쪽으로 들어가는 길 오른편에 지금은 문패도 없이 외양이 약간 탁해 보이는 허나 6·25 전까지는 최 한실이라는 K 대학교수의 사랑의 보금자리였다."[26]

6·25전과 대비되는 지금은 색상이 바랜 주택가의 K 대학교수 자택을 카메라로 비추듯 자세히 언급하며, 가명인 송숙희에 대한 사연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세 명의 인물이 저마다 다른 방향을 응시하는 사진을 대신하는 삽화는 "공방의 외로움을 메꿔준 사나이. 그러나 그는 아내가 있는 남자! 빚과 사랑에 쪼들려 광인이 되어버린 여인 애사"의 자극적인 표제와 더불어 이어질 사건을 예고하는 기혼남의 등장과 유혹 및 빚의 덫과 광기의 여인 애사가 선전되고 있다. 남녀의 애욕과 전락의 두드러진 표지들은 자연스럽게 당대의 아이콘인 정비석의 『자유 부인』을 떠올리게 하는데,[27] 특히 송숙희가 경기고녀 출신의 엘리트 여성이자 대학교수를 남편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닮은꼴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녀에게는 오선영을 넘어서는 결정적인 자질이 덧입혀지는데, 바로 부역 교수라는 국가 반역죄의 주홍 글씨이다.

---

26) 성소민, 〈부역 교수부인 전락 기록〉, 『야담과 실화』, 1958.2, 108쪽.

27) 정비석의 『자유 부인』은 당대의 아이콘이라 불러도 과히 손색이 없다. 오죽하면 법학자 황산덕과 정비석 간에 논쟁이 오갔으랴 싶을 만큼 『자유 부인』이 불러온 사회적 파장은 컸다. 황산덕은 『자유 부인』의 해악이 중공군 50만의 침공에 비유할 만하다는 시대의 명언을 남겼는데, 이는 정비석의 지속적인 성 모럴의 환기에도 불구하고 오선영이 풍기는 근대 자본주의의 성적 자유분방함에서 연유한 것이기도 하다. 황산덕의 발언에 발끈한 정비석(〈탈선적 시비를 박함〉, 『서울신문』, 1954.3.11.)에 대한 재반박인 셈인 황산덕(〈다시 『자유 부인』 작가에게〉, 『서울신문』, 1954.3.14.)의 "야비한 인기 욕에만 사로잡히어 저속 유치한 에로 작문을 희롱하는 문학의 적이요, 문학의 파괴자요, 중공군 50만 명에 해당하는 조국의 적"이라는 비난은, 에로와 이적을 등치하는 풍기문란죄의 논리가 사정당국보다 앞서 지식인 내부에서 먼저 작동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서가 뒷받침된 자리에서야 비로소 국가의 물리력 행사가 정당화되었음을 또한 이 사례는 알려주고 있기도 하다.

www.kci.go.kr

"6·25동란이 일어나자 최 교수는 하룻밤 사이에 붉은 교수로서 K 대학에 나타났음은 물론 동리에서도 유력한 남로당원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가 가리키는 최 교수의 전시 좌익 부역은 그녀의 삶 역시나 6·25전과 후로 판이하게 나뉘게 한다. 해방 후 한국 사회에서 부역의 두 계기인 친일 부역에 면죄부가 주어진 것과 달리 전시 부역 행위는 아감벤(Giorgio Agamben)의 통찰을 빌리자면 생사여탈의 초법적 권력 행사가 언제든 가능한 '호모 사케르'로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이다.[28] 따라서 남은 선택지는 동반 월북 아니면 단독 월북뿐이었고, 그녀는 남편이 권유한 동반 월북을 물리친 순간부터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전쟁 미망인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월북한 남편의 빈자리와 부역 가족으로서 비국민의 박탈된 삶 앞에서, 그녀가 생계유지 수단으로 선택한 다방 마담은 『자유 부인』의 오선영이 누리던 성적 자유의 기미마저 빼앗긴 채 "마음 내키는 대로 희롱도 할 수 있으며 다만 얼마라도 가지고 있는 돈을 이용할 수"도 있는 집 바깥의 성이 되어 전락을 거듭하던 끝에 광기에 이르는 처절한 파탄기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지금 숙희는 모 대학 정문 앞에서 어떤 친척이 경영하는 서점에 근무하면서 자식들과 함께 새로운 생활에 재출발하였다고 한다"[29]는, 본 서사가 끝나고 후문의 형식으로 결미에 덧붙여진 것이다. 불륜의 충격과 계사기의 범죄 그리고 도피 행각으로 인해 그녀는 1년여 이상 정신이상을 겪다가 오선영이 가정으로 복귀하듯 그렇게 가족과 친지의 사적 관계망에 안기는 성 모럴의 변주로 봉합되고 있다. 범죄, 엽기, 가족 비극, 비련 애사가 착종된 이전의 서사가 실재였음을 보완하는 후문에 실려 『자유 부인』의 실화판이 양산되었음을 재확인케 되는 대목이다. 인용된 나머지 실화들도 이

28)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 『호모 사케르』, 박진우 역, 새물결, 2008, 2장 참조.
29) 성소민, 앞의 글, 115쪽.

www.kci.go.kr

자장에서 벗어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그중에서 신낙현의 〈진짜 김일성 장군 신출귀몰 투쟁 비화〉는 '가짜 김일성 설'과 연루된 북한(나아가 공산 진영)의 성 문제에 대한 폭로 실화의 한 축을 이룬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1958년 1월 〈독립군 진짜 김일성〉을 필두로 2월 〈진짜 김일성 장군 신출귀몰 투쟁 비화〉, 3월 〈해남도에서 병사한 진짜 김일성〉의 3부로 구성된 이 연작물은 제목에서 강조되다시피 진짜 김일성의 존재 여부가 관심사이다. 이를 위해 진짜 김일성을 만났다고 하는 목격담이 목격자의 사진과 함께 실려 신빙성을 더하는데, 보통 영화와 저명인사를 제외하고 사진을 잘 쓰지 않던 당대 대중지의 여건상 목격자 사진은 그 자체로 진실성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의 주인공 유춘우 씨의 목격담을 실은 2부와 3부는 서울 세브란스 병원의 잡역부로 일하던 그의 앞에 30여 년 전 홀연히 나타났다 사라진 진짜 김일성의 존재를 증언하며, 작가의 논평이 담긴 "김일성의 최후와 현 김일성"의 '가짜 김일성 설'에 힘을 보태게 된다. 진짜 김일성이 따로 있고 해방 전 해남도에서 사망했다면, 현재 북한에 있는 김일성은 가짜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방 직후부터 너무 앳된 모습으로 등장해 월남 지식인들의 증언과 회고를 통해 가짜=괴뢰의 풍문을 사실인 양 유통하던 남한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주장은 전혀 낯설지 않다. 최태응의 〈김일성 씨에게 일 국민이 호소하는 서한〉을 위시해 오영진의 『또 하나의 증언』과 한재덕의 『김일성을 고발한다』 등으로 이어지는 '가짜 김일성 설'의 계보는, "그간 일제 하에서의 고국 동포들에게는 김일성(金一成) 장군의 이름 중의 「一」짜가 「日」짜로 선전되어" 온 것을 빌미로 "그렇듯 갑자기 해방된 조국에 「김일성」으로 자처"[30]하고 나선 인생 절도의 혐의를 현 김일성에게 덮어씌우기에 안성

www.kci.go.kr

맞춤이었던 셈이다.[31]

나이 지긋한 아버지뻘의 김일성(金一成)을 참칭한 패덕한 존재로서의 현 김일성(金日成)은 소련의 괴뢰로 북한 정권을 매도했던 남한의 반공 담론과 결부되어 1957.12월 〈연안파 숙청 뒤에 숨은 두 여인〉과 같은 유사 성적 버전을 가시화했다. 박정애와 허정숙이라는 북한 정권의 유력한 두 여성 정치가가 이 잘 짜인 각본의 무대 뒤 주역으로 맹활약했다는 것이 이야기의 초점이다. "「스타-린」의 창조물"인 김일성과 공모하여 "소련의 선례를 따"라 김일성의 정적을 쳐낸 흑막 정치의 산 표본으로서 불려 나온 두 여성에게 쏟아진 날 것의 비난과 적의는 다음의 한 문장에 고스란히 압축되어 있다. "늙은 암탉 두 마리가 날개를 치며 붉은 소리를 내자 연안파 공산당원들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졌다."[32] 북한 정권의 비법성과 타락상을 드러내기 위해 여성의 성을 매개로 한 이와 같은 가십성 실화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이 예로부터의 말"이라고 하는 격언에 실려 '가짜 김일성 설'과 교호하며 반공과 에로의 접목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로도 이어질 북한판 폭로 실화의 한 전형으로 자리매김한다고 하겠다.

---

30) 신낙현, 〈해남도에서 병사한 진짜 김일성〉, 『야담과 실화』, 1958.3, 251쪽.

31) '가짜 김일성 설'의 포문은 해방 직후 월남한 최태응이 열었다. 그는 1949.3월 『대조』에 실은 〈김일성 씨에게 일 국민이 호소하는 서한〉에서, 김일성이 항일투쟁의 실체와 무관한 인물임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이 문제 제기는 이후 오영진의 『소 군정 하의 북한 - 또 하나의 증언』, 국민사상지도원, 1952에서 더욱 극화된 방식으로 재현되었다. 일본에 밀파되어 귀순한 한재덕은 『김일성을 고발한다』, 내외문화사, 1965에서 오영진의 발언을 그대로 원용하며, 이 '가짜 김일성 설'을 실체화하기에 이르는데, 이를 둘러싼 움직임에 대해서는 공임순, 「김일성의 청년상에 대한 (남)북한의 상징 투쟁과 체제 전유의 방식들」, 『민족문학사연구』 제39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에서 지적한 바 있다.

32) 조현묵, 〈연안파 숙청 뒤에 숨은 두 여인〉, 『야담과 실화』, 1957.12, 82쪽.

www.kci.go.kr

3. 야담, 최종선과 에로의 가미된 기교들

『야담과 실화』는 두 장르명을 연접한 것이지만, 제목으로만 따지자면 야담이 실화를 제치고 선편을 잡은 형세를 취한다. 『실화』와 『야담』이 이미 대중지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뒤라 어느 쪽도 쓸 수 없었던 잡지사의 고육지책이 낳은 산물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실화와 야담』이 아니라 『야담과 실화』로 낙착된 데는, 야담이 1930년대에 이어 1950년대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당대의 화제성이라는 측면에서 실화가 지닌 대중적 소구력은 옛이야기에 기반한 야담을 능가했음은 틀림없고, "오락지의 왕"이라는 창간 슬로건 아래 특종 실화가 중심에 섰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으나 잡지명에 걸맞게 매호 야담은 메인 코너로 적어도 4편에서 5편 이상이 실렸다. 폐간까지 이러한 편집 방침은 유지되었으며, 창간호에서 선보인 특선 야담 코너는 기담(奇談), 진담(珍談) 등의 다양한 수식언으로 윤색되면서 『야담과 실화』를 지탱한 두 축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이 코너를 통해 등장한 야담가들은 식민지시기 일세를 풍미한 야담 대가들은 아니었다. 기존 논의에서 짚은 적이 있지만, 이들은 야담 장에서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33] 특히 한국전쟁으로 인한 비극 중 하나인 신정언의 납북은 병이 깊어 글을 쓸 수 없게 된 김동인의 죽음보다 더 큰 공백을 남겼는데, '제2 전성기'를 맞은 야담의 득세와는 괴리가 있는 상태였다. 이 난관을 돌파하고자 야담을 주력으로 삼은 대중지들의 수혈 경쟁이 치열했는데, 하나는 작고한 야담가들의 전작을, 다른 하나는 중고 신인이라 할 만

33) 공임순, 「해방기 신정언과 김동인의 활약상과 그 행방」, 『한국문학논총』 제91호, 한국문학회, 2022.

www.kci.go.kr

한 야담가들에게 지면을 맡기는 것이었다. 당시 『야담』뿐만 아니라 역사물의 비중이 높았던 『아리랑』도 윤백남, 유추강, 차상찬 등의 유고를 유족과 협의해 일정 기간 독점 게재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지면 경쟁에 대처하는 한편,[34] 구소청, 백대진, 이상옥, 이서진, 조준경, 최종선, 허문녕, 홍효민 등의 대중지에 특화된 야담가들로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 이들의 이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것도 이들의 활동이 1950년대에 주로 이뤄졌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이를 견인차로 1959년 동국 문화사의 '한국야담사화전집' 20명의 필진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행운을 거머쥐게 된다.

기존 대중지의 양 트랙에 비추어 『야담과 실화』는 작고한 야담 대가들의 전작 수록에는 상대적으로 공을 들이지는 않은 듯이 보인다. 1957.4월 이보상의 〈철천의 원혼〉과 1957.12월 윤고종의 〈옥저와 비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소설가 일부도 참여한 창작 야담이 선보였기 때문이다. 이 이유는 전작 입수 경쟁에서 뒤처진 후발주자의 불리한 입지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땅의 작가는 슬프게도 야담이나 간통 야화만을 제조할 능력밖에 없다"[35]고 하는 자조 섞인 말에 담긴 제조 야담의 필요성 때문일 수도 있다. 『야담과 실화』 필화 사건이 야담을 정면으로 향해 있지 않았다 해도 이에 앞서 3개월의 무거운 정간 조치를 받았던 『흥미』는 〈귀신의 중매〉라는 야담 일부가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음을 감안하면, 전작 야담이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을 대중지 특화의 작가들을 동원한 맞춤형 야담이 견인

34) 『아리랑』은 차상찬의 유족과 특약 게재 형식으로 1년여에 걸쳐 전작을 실었다. 현대어로 수정된 전작들은 자연스럽게 '한국야담사화전집'으로 이어지며, 야담가 차상찬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 이 개고 작업은 잡지사가 담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유족과 협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차상찬의 전작은 한자가 많고 고투가 심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련해서는 공임순, 「삼중당의 '대중문고', 『아리랑』, 역사물의 연쇄와 순환」, 앞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35) 김영수, 〈잡초는 무성한다 (하)〉, 『경향신문』, 1959.04.29., 4면.

www.kci.go.kr

했을 여지를 열어놓는다. 특선 야담 코너를 담당한 작가군의 면면은 이 맥락과 관련하여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온다.

매호마다 작가군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눈에 띄는 인물로는 전창근의 필명으로 〈소위 하와이 근성 시비〉를 1959.7월 『야화』에 썼다가 필화 사건에 휘말려 세속을 떠난 조영암이나 신낙현 등의 작가 겸용 야담가가 있다. 한문 소양과 역사 지식 등, 신인이 맡기에는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있는 야담의 경우 지면에 따라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조영암과 신낙현 같은 존재는 대단히 유익했다. 이들은 여러 코너를 넘나들며, 편집자가 요구하는 대로 써줄 수 있는 동종업계의 베테랑이기도 했던 까닭이다. 『야담과 실화』 폐간 후 발행인 이종렬과 함께 『야화』에서 필화 사건의 당사자가 된 조영암의 활동폭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36] 이들과 함께 일제 말기부터 이력을 쌓아온 중고 신인 야담가들도 있는데, 바로 구소청과 최종선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구소청은 창간호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나 최종선은 1957.5월호에 처음 등장했다. 〈정 장사의 출세 염화(艶話)〉를 "정선 야담" 5편 중의 하나로 실으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그는 야담 코너의 주요 필자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는데, 아래 도표는 최종선의 야담을 호별로 정리해 본 결과이다. 이는 최종선의 야담이 다른 야담과 비교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야담이 지닌 다른 야담들과의 공통점이 작

36) 〈야화(夜話) 필화 사건 첫 공판 개정〉, 『동아일보』, 1958.9.10. 보도에 따르면, 〈하와이 근성 시비〉로 기소된 조영암은 재판정에서 "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사 년 전부터 잡지출판 관계로 잘 알고 있는 야화 발행인 이 씨의 청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처음에는 그러한 글을 쓰기를 거절하였으나 이 씨의 간청에 못 이겨 쓰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여기서 이 씨는 『야담과 실화』 발행인이던 이종렬을 말한다. 특정 지역민에 대한 비하로 불거진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 나서는 사태로까지 확대되어 두 사람은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조영암은 문단과는 거리를 두고 저술 활동은 간간히 이어가다가 불가에 귀의하는 개인사적으로도 큰 고비를 넘게 된다.

www.kci.go.kr

용해서이다. 일제 말기의 활동을 토대로 1950년대 야담가로 변신하는 그의 이력과 결부하여 실화와 더불어 두 축선을 형성했던 야담의 일면을 개관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낳은 산물로 보는 편이 보다 실상에 가깝다.

최종선은 1950년대의 시점에서 이미 적지 않은 나이를 갖고 있었다. 1899년 충남 아산 출생인 그는 제도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경기도 농정과 직원으로 복무한 인상적인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했다.[37] 그의 독학이 한학과 고전의 폭넓은 이해에 기반해 있었음은 일제 말기에 펴낸 『전원석화(田園夕話)』에서 드러나는데, 이 책자는 전진 병참기지로서 조선 후방을 책임지는 농촌의 식량 증산과 확충을 목표로 집필된 일종의 국책 선전물이었다. 시국 색을 입힌 이 책자는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 가며 농촌 문화의 교화와 향상을 역설하는 한편, 생산성 능률 제고의 방안으로 향토 오락을 살린 농촌 오락에 한 장을 할애하는 관심을 쏟는다.[38] 농악단, 특히 두레패에 대한 고전과 당대의 접목은 해방기 농촌 잡지 주간을 거쳐 대중지에 특화된 중고 신인 야담가의 약진을 뒷받침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시기부터 이어진 이력을 바탕으로 농촌 야담의 몇 안 되는 야담가로 『아리랑』에서도 활약했던 그는, 1957년 중반을 기점으로 화보 위주의 보는 잡지로 대중지의 방향 선회가 두드러지며 야담 지면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야담과 실화』에 올라타게 된다.[39] 한때 '제2 전성

37) 최종선의 온전한 연보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다. 경기도 농정과 직원으로 일했다는 경력도 여러 조각을 맞춰 확인한 것이다. 가령 최종선, 〈내지 농촌의 시찰을 마치고(內地農村の視察を終へて)〉, 『조선신문』 호남판, 1937.7.7.에서는 시흥 군청 소속으로 표기되어 있다. 3년 전 이곳으로 전근해 왔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 그는 경기도 관할 내에서 농촌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농촌 잡지의 주간과 연농사 사장직을 역임한 것도 해방 전 행적과 궤를 같이하는 흐름이다.

38) 小泉原一(舊名 최종선), 『전원석화(田園夕話)』, 조선행정학회, 1941.

39) 최종선의 『아리랑』 등단작은 농촌 야사를 타이틀로 한 〈여장부의 도락〉이었다. 그 외

www.kci.go.kr

기'라는 야담의 고조된 분위기를 타고 실화 전문지의 본분 대신 "야담과 실화 종합지"를 내걸었던 『실화』 역시 실화 전문지로 재복귀하던 시점이었다. 이러한 대중지의 전반적인 기조 변화에도 총 23호가 발간된 『야담과 실화』는 상대적으로 야담 지면을 꾸준히 유지했다는 점에서 최종선의 합류는 일견 당연하다고 할 터인데, 이를 전제로 최종선의 야담은 아래와 같은 분포도를 보여주게 된다.

〈표 2〉 최종선의 야담과 제목 및 표제/내용

호수	제목/ 장르명	표제/내용	실물 유무
1957.5	정 장사의 출세 염화(艶話)/출세 비화	임진왜란 발발 전해 정기룡과 전주 향감의 딸 권 처녀의 기연과 혼인담	유
1957.6	첫날밤의 괴변	이대를 잇달은 첫날 밤의 신방에서의 피의 비극! 사련(邪戀)에 빠진 무리들은 피의 보복을 받아야만 했다!	유
1957.7	천하일색/가연 정화	살며시 이불을 들치고 들어오는 여인의 살결을 물리치던 김 역관(驛官)이지만 천하일색에는 어찌하랴.	유
1957.11	이학자(李學者)와 여우와 황녀/요괴 기담	고려 시대 유명한 역학자 신협과 신즙 형제가 원나라 공주에게 들러붙은 불여우를 물리친 치유담	유
1958.1	아내 찾은 정월(正月)		무
1958.2	대애멸적(大愛滅敵)/려조(麗朝) 사화	어린 사슴을 쫓는 귀공자와 그를 감춰주는 시골 색씨! 첫사랑은 이루었으나 …….	유

농촌 전설 〈현모의 담〉, 농촌 야담 〈잠가(蠶架)의 애원〉, 농촌 야화 〈주경야독의 여경〉 등으로 농촌 관련 야담을 싣다가 1957년 이후에는 지면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www.kci.go.kr

1958.3	패륜 비극 6화	금고(今古)를 통하여 소위 양반의 가정에서 혹 패륜 간음하였던 사실이 있었다니 어찌하랴. ……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유
1958.5	걸사(傑士) 임형수의 특행(特行)/ 의협 기담	계집종의 수상한 거동과 소교(素轎)! 놀아나는 중놈과 지아비를 저버린 요부의 음행을 들여다보는 임형수!	유
1958.6	음탕 대경실색		무
1958.9	탄금교(彈琴交)/의협 기담	헌칠한 미장부와 초당의 미녀 사이에 오고 가는 하룻밤의 인연! 운율의 무아경에서 지나는 청춘남녀의 여름밤!	유
1958.10	원궁한(元宮恨)	원경에서 외롭게 향수에 잠기는 고려녀. 그에게도 고국에는 그리운 님이 있건만 …….	유
1958.12	통한의 잉태/추리 탐정 야담	밤중에 마당을 서성대는 상인 한 사람. 꽃 같은 아내를 두고도 정을 참았으나 그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	유

위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최종선의 야담은 전부 12편을 기록한다. 대중지의 특성상 유실한 호도 있어서 2편은 신문광고와 교차하여 제목만 확인했다. 마지막 비고란은 그 존재 여부를 밝힌 것이다. 나머지 입수 가능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호수, 제목과 타이틀 명 및 표제/내용을 적시했는데, 이렇게 묶은 이유는 『야담과 실화』의 등판 작에 해당하는 1957.5월 〈정장사의 출세 염화(艶話)〉와 동해 12월호의 〈이학자(李學者)와 여우와 황녀〉에는 따로 표제가 없어 이를 줄거리 요약으로 대신했기 때문이다. 대부

www.kci.go.kr

분의 야담이 온갖 타이틀 명을 붙이곤 했는데,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는 그것이 빠진 예외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늦은 합류에도 불구하고 전체 발간된 호수의 절반이 넘게 실린 최종선의 야담은, 한눈에도 남녀 간 인연과 정애(情愛)가 대부분이었음을 짐작게 한다. "원경에서 외롭게 향수에 잠기는 고려녀. 그에게도 고국에는 그리운 님이 있건만 ……"의 줄임표가 인상적인 1958.10월 〈원궁한(元宮恨)〉을 단초로 삼아보자.

> 「아-」 기씨(奇氏)는 비단 이불을 걷어치고 일어나 앉았다. 황제가 이곳 침소에서 물러나가신 후 다시 늦잠이 들었던 자신임을 깨달았다. 기씨는 하품과 기지개를 함께 켜며 느른함을 느꼈다. 풀어 헤쳐진 속나삼 사이로 부드럽게 부풀어 오른 젖통이를 기씨는 자기 손으로 어루만져 봤다. 단속곳 허리띠도 풀어진 채……. 사뭇 드러나는 배꽃감이 하얗고 곱다란 살결이며 곡선을 스스로가 발견했을 때, 「역시 고려녀(高麗女)가 아니고는 이 원나라 천지에는 이렇게 하얀 살가심이 없으리라.」 기씨는 안타깝기만 했다. 그는 구름같이 흩어져 늘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올리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지나간 밤의 일을 생각해 본다. 그저 여자로서 당해야겠기 당했을 뿐, 그리 아기자기한 달콤한 꿈이라곤 할 수 없었다.[40]

유독 야담에서 두드러지는 표제의 줄임말은 이어질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 유발을 위한 의도적 장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방랑 어사와 미녀〉의 "어사가 도적의 소굴에서 만난 미녀의 정체는?"[41]에서 쓰인 물음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줄임표는 주인공이 첫째 고려녀라는 것, 둘째 고국에 남겨진 옛 연인이 있었다고 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한 채 본격적인 서사로 옮겨간다. 위 인용문은 1장을 여는 도입부

40) 최종선, 〈원궁한(元宮恨)〉, 『야담과 실화』, 1958.10, 380쪽.
41) 김양식, 〈방랑 어사와 미녀〉, 『야담과 실화』, 1957.2, 156쪽.

www.kci.go.kr

이다. 기씨가 표제에서 언급한 고려녀일 것이라는 곳곳의 단서는 갓 잠에서 깨어난 그녀의 나른하고 무방비한 육체의 전시와 함께 주어진다. 젖통이를 만지는 기씨의 손길, 풀어진 단속곳에서 드러나는 배꼽의 속살, 구름처럼 흩어진 머리카락 등으로 여체를 집요하게 탐색하는 시선이 시각적 볼거리를 제시하는 가운데 "아무리 그것이 만승천자(萬乘天子)의 총애라고 해도 그 이방 사람의 냄새 풍기는 엄청나고 육중한 육덕 밑에선 애틋한 정을 느끼기"가 어려웠다고 하는 원 황제와의 성교에 대한 묘사가 이어진 후 비로소 본국에 두고 온 연인에 대한 그리움의 감정이 초점화되고 있다.

2장에 들어서야 기씨에 대한 과거 내력이 펼쳐진다. 아버지 기자오가 낙향하여 행주 고을에서 전원생활을 하던 참에 막내딸 기씨는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위 다섯 형제의 출세욕에 눈먼 희생양이 되고 마는데, "원나라 황실에서 직접 황제의 어공(御供)을 받을 만한 궁녀 감으로 고려 여자를 뽑아 간다 하기에 우리가 자원해서 누이를 천거"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있던 가산은 다섯 형제의 손에서 다 녹아나고 나이 든 아버지 혼자 힘으로는 농사도 짓기 힘들 때 집안일을 도맡아 해준 동네 과부의 아들 불화가 바로 그녀의 애틋한 첫사랑이자 연인이었다. 하지만 어떻게든 조정의 벼슬자리를 탐하던 다섯 형제의 계략과 술수에 그녀는 팔리다시피 원 황실에 들어오게 되고, 아름다운 외모 덕에 궁녀에서 황제의 총애를 받는 귀비로 승격했다는 사연이 서사의 큰 줄기를 이루는 것이다.

1장과 달리 2장은 "기씨는 원래 고려국 행주 고을 기자오의 딸이었다"고 하는 고전 서사의 익숙한 기본 패턴에서 시작한다. 이 도입과 함께 기씨의 사연은 그 자체만으로 과거와 현재로 연결되는 완결성을 지니고 있어서 인용된 1장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는 곧 1장이 서사 전개에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야담 코너가 실화와 더불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구성상의 효력과 결부시켜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을 내포한다. 3장과 4장의 서사

www.kci.go.kr

추이는 이 점을 실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우연히 원 황실에서 만나게 된 두 연인은 열녀전, 효경, 역대 궁중행실록 등의 경전을 거울삼아 건전한 관계로 일관하다가 기씨가 제2 황후의 고귀한 자리에 오르는 성공과 훈훈한 교훈담으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1장의 관능적 여체 묘사가 무색하게도 서사는 이후 별다른 성적 일탈이나 타락 없이 문익점의 면화 반출 사건과 맞물리는 연쇄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이때 귀양을 풀려나오는 문익점 선생이 그 지방 원산인 목화씨를 몰래 보따리 속에 지녀 가지고 나와 고려국 강토에 목면 종자를 퍼뜨리고 장려한 얘기는 누구나 아는 일이거니와 그 이면에 숨은 얘기! 불화와 면화와의 관련성을 아는 사람은 적을 것이다"[42]라고 하는 야담 본연의 사실성 환기로 서사는 끝이 난다.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 기씨와 불화의 이야기는 '실제 역사 이야기'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형태의 서사적 종결이다. 이른바 숨겨진 에피소드를 잘 알려진 사건과 혼합하는 이러한 진실성 효력은 전시 프로파간다로 훌륭하게 기능했던 야담의 전사(前史)가 말해주듯 특정 시대상을 매개하는 야담의 존립 근거이기도 했다. 따라서 기씨와 불화의 못다 이룬 인연을 문익점의 목화 반출 사건과 직조함으로써 1장의 에로를 가미하는 재조합의 기술은 그 자체로 특정 시대상을 반영하게 되는 셈인데, 이는 1958.3월호의 "패륜 비극 6화"에서도 엿보이는 대목이다. 제목에서부터 풍기는 짙은 에로의 농도만큼이나 〈원궁한〉을 넘어 『흥미』의 검열 수위까지 넘실거리는 에로+ (……)의 구체적 변형태에 값하는 일례가 아닐 수 없다.

(가) 황 노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만 며누리의 허리를 힘껏 끼어 안고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그의 숨결은 별안간 가빠진다. 그러다가 댓

42) 최종선, 앞의 글, 389쪽.

www.kci.go.kr

돌 위에 푸시시 쓰러지고 마는 것이다. 그의 눈은 실과 같이 가늘게 꼭 감겨지고 말았던 것이다. 천만뜻밖에 의외의 일을 당하고 난 며누리는 「아버님 아버님, 어인 일이오니까?」 하고 부르짖었으나 한번 쓰러져서 눈을 감은 황노인은 다시 아무 말이 없었던 것이다. ……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어떻게 해석해야 옳을 것이냐. 이르기를 황 노인이 달덩이와 같이 아름다운 과부 며느리에게 풍정을 항상 느껴오다가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쥐었고 허리를 끌어안기는 하였을망정 별안간 정광과 같이 자기의 머리에 부딪히는 불륜의 가책에 사로잡히여 스스로 부끄러움에 못 이기어 자진하였다고들 하지마는 필자는 구태여 그렇게 나쁜 면으로 해석하지 않고 신로심약(身老心弱)한 노인으로 자기와 또는 며누리의 현실 불행을 한없이 슬퍼한 나머지 너무나 흥분된 슬픔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연민의 정으로 마지막 포옹을 하였던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되는 바이다.43)

(나)「부디 저를 끼어 안어 주세요.」「오오 갸륵한 사랑의 고백이여.」「무릉 도령님. 여자는 그것을 못 참어요.」「그렇습니다. 서로가 참으면 몸에 해롭습니다. 어서 이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방안의 등잔불은 꺼지고 무릉 도령님과 순길 아씨의 숨 가쁜 싸움은 긴긴 밤이 짧다는 식으로 벌어졌다.44)

위 인용문은 각각 "패륜 비극 6화" 중 〈청상 자부를 모욕하려던 칠십 고령의 황진〉과 『흥미』 2월호에 실린 〈귀신의 중매〉 일부이다. 1958년 2월과 3월호로 시기도 겹치는 두 야담 간에 어느 쪽이 더 심한 풍기문란죄에 해당하는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청상 자부를 모욕하려던 칠십 고령의 황진〉은, 판금과 정간 파문에 휩쓸린 『흥미』의 〈귀신의 중매〉에 비해

43) 최종선·이용담, 〈청상 자부를 모욕하려던 칠십 고령의 황진〉, 『야담과 실화』, 1958.3, 129-130쪽.

44) 〈귀신의 중매〉, 『흥미』, 1958.2, 32쪽. 〈가실 줄 모르는 에로 붐〉, 1958.2.7., 25쪽에서 재인용했다.

www.kci.go.kr

직접적인 성교 장면이 없다고는 하나 제목이 암시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 근친상간은 심리적 금기를 자극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반면 〈귀신의 중매〉는 비록 노골적인 성애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고는 해도 한창 정열이 끓어오르는 청춘남녀의 성적 유희와 쾌락으로 읽힐 여지를 남긴다. 따라서 어느 쪽이 더 풍속과 일상의 규범을 해쳤는가를 둘러싼 수위 논쟁은 무의미했는데, 단지 차이라면 『흥미』의 〈귀신의 중매〉가 검열의 벽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데 있을 뿐이었다.

『흥미』의 검열 수위에 결코 뒤지지 않는 이러한 근친상간의 패륜은, 다음의 작가 논평으로 일정한 긍정적 해석이 부가되기도 한다. "필자는 구태여 그렇게 나쁜 면으로 해석하지 않고 신로심약(身老心弱)한 노인으로 자기와 또는 며누리의 현실 불행을 한없이 슬퍼한 나머지 너무나 흥분된 슬픔 속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연민의 정으로 마지막 포옹을 하였던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되는 바이다." 예전에는 "아름다운 과부 며느리에게 풍정을 항상 느껴오다가 그날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들 이르지만, 현대인인 자신이 보기에는 한 집안에서 서로 의지하던 고독한 연민의 정을 육욕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예전과 오늘날을 대비하는 언술을 동반하며 '패륜'과 '인정'을 해석적 경합지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 속에서 "황 노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만 며누리의 허리를 힘껏 끼어 안고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와 같은 에로의 기술이 극화된다. "패륜 비극 6화"의 다른 에피소드와 함께 성적 일탈과 금기/검열의 임계선을 오간 1950년대 야담과 최종선의 자리는 그렇게 '제2 전성기'의 마지막 국면을 넘어서던 참이었다.[45]

---

45) "패륜 비극 6화"는 본문의 5화 외에 1화 〈취중에 며누리를 욕보인 논객 명사 S 씨의 패륜〉, 2화 〈근신과 사통하여 국난을 일으킨 천추후의 사련(邪戀)〉, 3화 〈막객(幕客)의 처와 불륜의 정을 맺은 대량성주(大梁城主) 품석(品釋)의 최후〉, 4화 〈동침한 후에 남

www.kci.go.kr

4.『야담과 실화』 폐간 조치를 둘러싼 당대적 힘의 역학-나오며

군정법령 제88호를 가동한『야담과 실화』폐간 조치는 1950년대 후반 대중지 검열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돌발적이거나 예외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미 그 이전에도『실화』,『흥미』와 같은 잡지가 판금과 정간 조치를 받았으며,『청춘』,『부부』,『야화』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수의 대중지들이 풍기문란죄를 근거로 검열과 통제의 대상이 되어왔다. 대중지의 확산과 국가 검열은 1950년대 내내 병존하는 현실이었음을 환기하면서, 이 글은 필화 사건의 명명이 주류 언론매체뿐 아니라 대중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되짚고자 했다.

『야담과 실화』는 〈창간사〉에서 "야담이 풍겨주는 그윽한 고전적인 향기와 면면한 정서"를 강조하면서 이른바 이무영이 "젖꼭지 문학"이라 일컬은 통속소설 따위보다 훨씬 깊은 생활의 고아함과 풍부함을 줄 수 있다고 자부했다. 야담이 지닌 고전적 향취와 유구한 정서는 근대 야담 잡지였던『월간야담』과『야담』에서부터 이어져 온 낯익은 수사들이기도 했다.[46]

그러나『야담과 실화』는 창간의 캐치프레이즈와 달리 "나날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희로애락 이모저모의 실화에서 느끼는 스릴"[47]에 더 큰 비중을 두었음을 2장에서 확인했다. 이 실화의 '스릴'이란

매로 확인되어 자살로 속죄한 역신의 후예〉, 6화 〈충청도 목천(木川) 고을의「달래고개」의 유래〉로 구성되어 있다.

46) 참고로 윤백남이 쓴『월간야담』의 1934.10월 〈창간사〉의 한 구절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기도는 크다. 얄팍한 현대문명으로서 두툼한 조선 재래의 정서에 잠겨보자. 그리하여 우리의 이저진 아름다운 애인을 그 속에서 차저 보자."『야담과 실화』에서 주장했던 "그윽한 고전적인 향기와 면면한 정서"가 "두툼한 조선 재래의 정서"와 합치되는 양상을 인지하기란 어렵지 않다.

47) 이종렬, 〈창간사〉,『야담과 실화』, 1957.2, 20쪽.

www.kci.go.kr

좁게는 개인과 가족, 넓게는 사회와 국가 및 세계를 망라하며 범죄, 애사, 비극, 미담 등과 접목 가능한 형태로 변주될 수 있었다는 점은 대중지가 실화를 선호했던 이유의 일단을 말해준다. 사회면이나 외지의 어느 한쪽 면에 있을 법한 "평범해진 별난 사실들"[48]을 잘 버무리기만 한다면, 갖가지 장르명을 붙인 실화의 재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자유 부인』의 실화판 여인 애사에서 '가짜 김일성 설'을 결합한 북한판 가십성 폭로 실화까지 실화는 1950년대 대중지를 떠받치는 강력한 추동력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정당국은 부단히 풍기문란죄로 허용과 금기/검열의 경계선을 긋고자 했고, 실로 운 나쁘게 『야담과 실화』는 야심 차게 내건 "한국판 킨제이보고서"로 인해 폐간 조치라는 엄벌을 받았다. 2장에서 검토한 '트루 스토리'와 '허실 조작' 사이에 걸친 실화의 사례들은 사정당국과 숨바꼭질을 벌이던 대중지의 존재 양태를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기도 하다.

3장은 이 연장선에서 야담의 변형과 변주를 논했다. 일제 말기 전시체제에서 국책 선전 책자를 냈던 최종선이 1950년대 대중지 야담가의 총아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에로의 선정성에 대한 당대적 요구를 성공적으로 재조합할 수 있었던 데 기인한다. 그의 야담은 정간 조치를 받았던 『흥미』의 야담 〈귀신의 중매〉 못지않게 관능적 여체의 묘사로 볼거리를 선사했을뿐더러 패륜을 인정과 경합하는 현대적 해석으로 "패륜 비극 6화"를 지면에 재현했음을 3장에서 논의했다.

1959년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상징되는 사상의 협착은 『명랑』이 내건 대중 노선인 7S, 즉 "Sex, Story, Star, Screen, Sports, Studio, Stage"와 궤를 같이하며 『야담과 실화』의 코너를 장식했다. 1960년대 대중지의

48)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텔레비전에 대하여』, 현택수 역, 동문선, 1998, 32쪽.

www.kci.go.kr

향방은 이 궤적과 겹치는 저속한 대중지의 악명을 계속해서 유지했음을 1964년 『조선일보』에 실린 〈반라의 대중잡지〉는 드러내 주는데, 출판계의 극심한 불황에도 대중지만이 홀로 높은 판매량을 올리고 있다고 알리기 때문이다.[49] 1950년대 대중지에 쏟아진 비난과 대동소이한 이 기사에서 1960년 4·19와 5·16의 격변을 거치면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1960년대 대중지의 윤곽이 그려진다. 1950년대 대중지가 직면한 한계와 가능성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며 그 성쇠를 거듭했는지를 논하는 일은 이 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연하는 것으로 이 글의 결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49) 〈반라의 대중잡지〉, 『조선일보』, 1964.06.17., 5면.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리랑』을 포함해 『명랑』, 『야담과 실화』, 『사랑』, 『로맨스』, 『농원』 등이 최저 2만 부에서 최고 15만 부까지 팔리고 있다는 한결같은 레퍼토리가 반복된다. 독자층의 3분의 2가 지방에 거주하고, 가정주부와 식모가 즐겨 읽는다는 낮은 문해력에 대한 폄하의 시선 또한 다르지 않다. 이중 눈에 띄는 대중지는 1950년대를 이어 주요 대중지로 꼽힌 7S의 『명랑』이다. 1950년대의 인기 요인이 1960년대에도 이어졌으리라는 짐작을 가능케 하는 단서로 기능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야담과 실화』, 야담과 실화사, 1957.2~1958.12. 일부 결호.

2. 논문과 단행본

공임순, 「김일성의 청년상에 대한 (남)북한의 상징 투쟁과 체제 전유의 방식들」, 『민족문학사연구』 제39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09, 287-317쪽.

_____, 「1950년대 전후 레짐(postwar regime)과 잡지 '희망'의 위상」, 『대중서사연구』 제23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8, 9-55쪽.

_____, 「해방기 신정언과 김동인의 활약상과 그 행방」, 『한국문학논총』 제91호, 한국문학회, 2022, 383-419쪽.

_____, 「삼중당의 '대중문고', 『아리랑』, 역사물의 연쇄와 순환」, 『춘원연구학보』 제26호, 춘원연구학회, 2023, 227-259쪽.

김미영, 「킨제이를 통해 본 자유주의 성 해방론과 그에 대한 비판」, 『사회와 이론』 제7호, 한국이론사회학회, 2005, 215-259쪽.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성의 역사 ①』, 이규현 역, 나남출판, 1997.

이두영, 『현대한국 출판사: 1945~2010』, 문예, 2015.

이봉범, 「1950년대 문화 재편과 검열」, 『한국문학연구』 제34호,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8, 7-49쪽.

임은희, 「『희망』 문예란에 나타난 '희망'의 표상 구축 방식과 문화정치」, 『대중서사연구』 제23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7, 95-130쪽.

오영진, 『소 군정 하의 북한-또 하나의 증언』, 국민사상지도원, 1952.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 『호모 사케르』, 박진우 역, 새물결, 2008.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 『텔레비전에 대하여』, 현택수 역, 동문선, 1998.

한재덕, 『김일성을 고발한다』, 내외문화사, 1965.

小泉原一(舊名 최종선), 『전원석화(田園夕話)』, 조선행정학회, 1941.

www.kci.go.kr

3. 기타 자료

박성환, 〈건강한 독자 위주하라〉, 『동아일보』,1954.07.18., 4면.

윤백남, 〈창간사〉, 『월간야담』, 1934.10.

이무영, 〈소금 장사 군상(群像)〉, 『희망』, 1954.9.

최종선, 〈내지 농촌의 시찰을 마치고(內地 農村の視察を終へて)〉, 『조선신문』 호남판, 1937.07.07.

「해제: 미국의 남한 점령과 국가 긴급권의 발동」, 국사편찬위원회, https://db.history.go.kr/item/cons/levelOnlyBiblio.do?levelId=cons_001_0050_0030_0010. (검색일: 2025.04.04.)

www.kci.go.kr

Abstract

The Yadam and True Story Censorship Case and the Obscenity Controversy Surrounding Two Subgenres in 1950s

Kong, Imsoon(Sogang University)

The forced discontinuation of *Yadam and True Story* under the authority of Military Government Ordinance No. 88 marked a symbolic moment in the censorship of popular magazines in late-1950s South Korea. However, this incident was neither sudden nor exceptional. Prior to it, other magazines such as *True Story(실화), Interest(흥미), Youth(청춘), Couple(부부), and Yahwa(야화)* had also been banned or suspended on grounds of violating public morals. Throughout the decade, the expansion of popular print culture and the persistence of state censorship existed side by side.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revisits the category of "literary offense"(필화 사건) not as an exclusive domain of mainstream journalistic media, but as one applicable also to popular magazines.

Chapters Two and Three examine the obscenity controversy surrounding the two subgenres—true story and yadam-which were directly implicated in the *Yadam and True Story* incident. The severe disciplinary response to this magazine was closely tied to the controversy around its sensational advertisement, "Has 60% of Seoul's maidens already lost it?", which promoted what came to be known as the "Korean Kinsey Report" before its release. The clash between the magazine's defense of scientific sexual statistics and the state's denunciation of it as fabrication exemplifies the asymmetrical power dynamic between popular print culture and government censorship. Nonetheless, this tension gave rise to a sexualized economy of gossip-oriented exposé narratives, as discussed in Chapter Two.

Chapter Three turns to the yadam genre, highlighting its erotic recombinations

www.kci.go.kr

involving taboo, crime, the female body, and the grotesque. Through a close reading of Choi Jong-seon's serialized tales, the paper argues that the success of these specialized yadam writers represented a culturally resonant yet marginalized current of the 1950s. The final chapter concludes by noting how, even into the 1960s, popular magazines continued to grapple with the shifting boundaries of permissibility and censorship under new campaigns of obscenity and purification.

(Keywords: *Yadam and True Story*, Obscenity Controversy, Censorship in 1950s Korea, Literary Offense(필화 사건), Gossip-Based Exposé Narrative, True Story, Choi Jong-seon's Erotic Yadam

논문투고일 : 2025년 5월 12일
논문심사일 : 2025년 6월 11일
수정완료일 : 2025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5년 6월 16일

www.kci.go.kr